

<2011년 12월 11일 주일말씀>

## 왜 영원한 기쁨의 세계 천국으로 가는 자보다 영원한 고통의 세계 지옥으로 가는 자가 더 많을까

본 문 마태복음 7장 13-14절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2-1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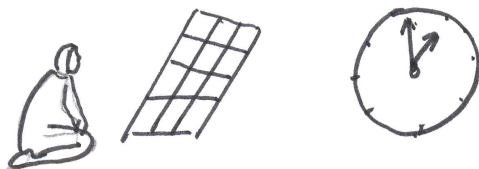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 크리스마스에 해당되는 설교 외에 올해 마지막 주일말씀입니다. 다음 주 12월 18일 주일부터는 주님의 성탄에 대한 말씀이 나갑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 주실까 모두 궁금할 것입니다.

(\* 지금부터 선생님이 주님께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 쪽 화면을 보면서 말씀할 것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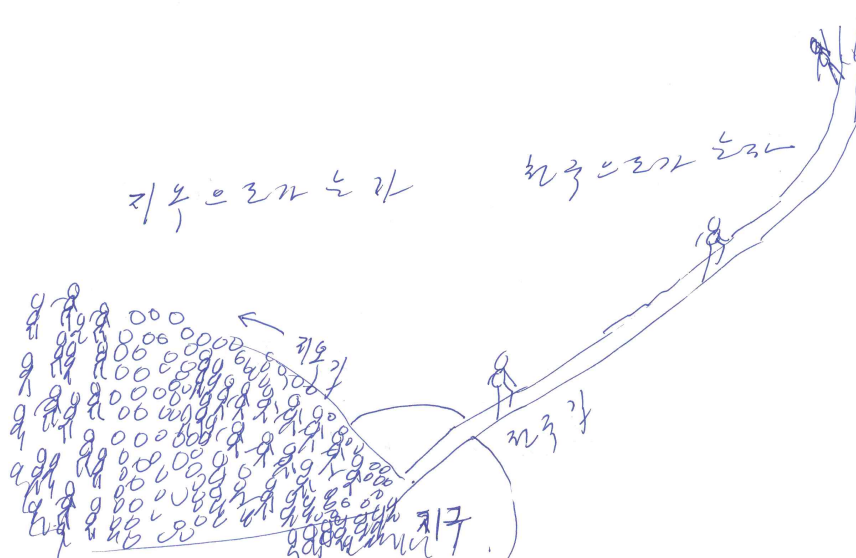
<영상1> 새벽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 사람들이 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물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를 두고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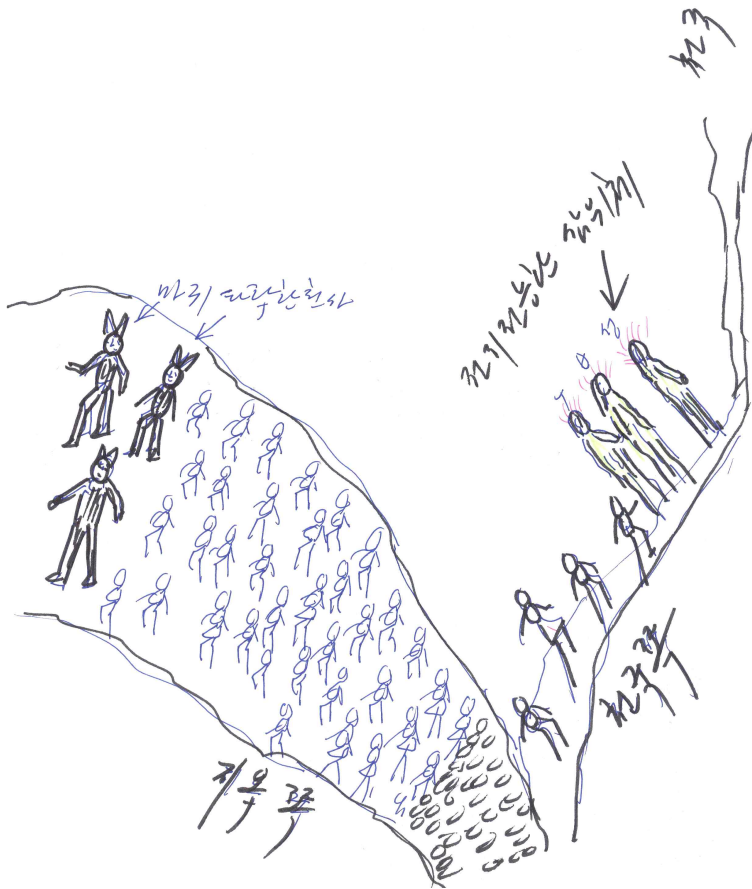
<선생님의 기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어 못 할 것이 없으시며 천지를 주관하시며 무소부재 하십니다. 성령님은 천모로서 감동으로 모든 자들의 마음을 다 녹이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진정 원하시어, 주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삼위의 성부, 성자, 성령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역사하시며 구원역사를 행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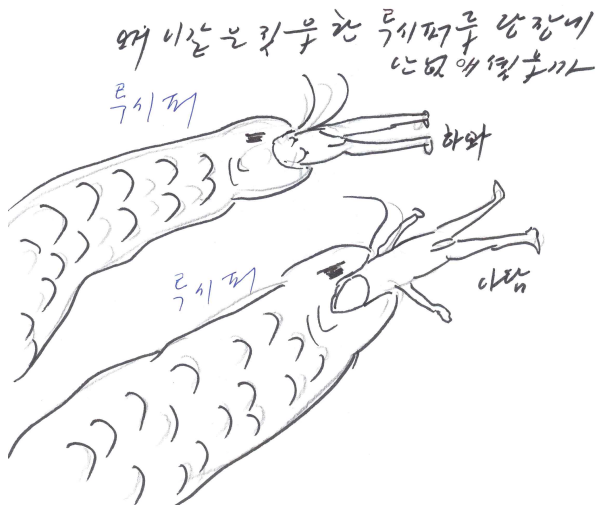
그런데 영계에 가서 보면 구원받고 천국이나 낙원으로 가는 영들보다 마귀가 지옥이나 무저갱이나 악영계로 끌고 가는 영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아도 보통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끌고 가는 영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귀는 전능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마음대로 지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지구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육과 영을 창조하시어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그렇게도 원하시면서 6000년 동안이나 구원역사를 펴시며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영계를 보면 왜 그렇게 구원받고 생명길로 가는 자들이 적습니까? 그 원인이 많겠지만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마귀가 더 능력자 같다고 할 것입니다.



6000년 전 에덴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린아이 하와를 마귀가 톡 잡아먹지 않았습니까? 마치 큰 뱀이 어린아이를 잡아먹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어린 10대의 아담과 하와를 보고 마귀한테 당했다고 형벌을 주시고, 그 후손들까지 4000년 동안 형벌을 주셨습니다.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는 아예 불태워 없애지 않으시고 그냥 저주만 하고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니 구약역사 4000년 동안에도 사탄들은 악인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도 괴롭혔습니다. 또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탄들은 불신자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죽이고, 신약역사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또 성약역사 때도 사탄은 불신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이 시대에 구원역사를 펴시는데 큰소리를 치며 방해하고 다니며 수만 명의 생명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왜 루시퍼가 이끄는 마귀들을 처리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사탄 루시퍼의 군대가 엄청나다고 말씀하시며 조심하라고만 말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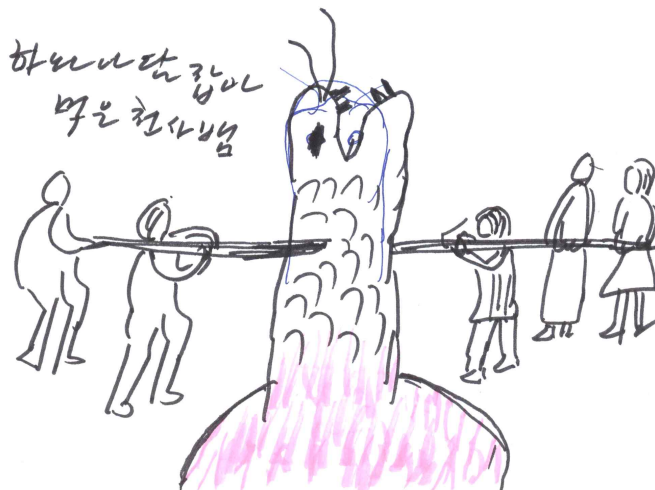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자로 안 보고 석가도, 공자도, 철학자들도 모두 하나님과 다 비슷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어도 별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며 안 믿고 삽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영상1 끝>

### <영상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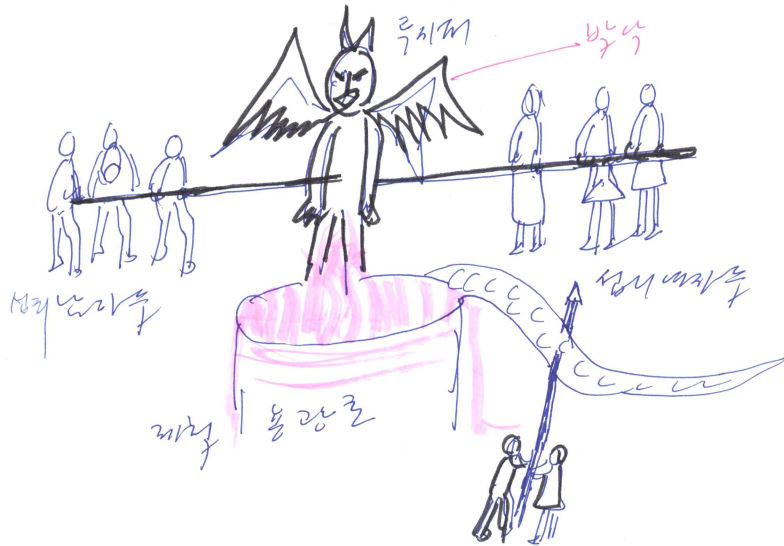
선생님 초안 참고, 자료 원본 참고하여 실감 나게 영상 제작  
평소 설교 내용 속도보다 조금 천천히 제작  
설교 내용을 모두 자막 처리할 것

여러분들도 이것이 궁금하지요? (\*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 2> 선생 같으면, 만일 내가 전지전능하여 사탄을 다스린다면 아담과 하와를 잡아먹는 원수 마귀를 족석에서 잡아 불에 태워 없앴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자기가 낳고 기른 아이를 뱀이 잡아먹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뱀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안 죽이겠습니까? 즉시 불에 넣고 태워 죽였을 것입니다. <영상2 끝>

## <영상2>



<자막> 선생 같으면, 만일 내가 전지전능하여 사탄을 다스린다면 아담과 하와를 잡아먹는 원수 마귀를 족석에서 잡아 불에 태워 없앴을 것입니다.



<자막>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자기가 낳고 기른 아이를 뱀이 잡아 먹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뱀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안 죽이겠습니까? 즉시 불에 넣고 태워 죽였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박살 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탄을 저주만 하시고 그냥 악한 활동을 하게 놔두셨습니다. 사탄은 갖은 악과 거짓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꾀고, 무력으로 끌고 가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탄들을 오늘날까지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사탄들이 활동하게 그냥 놔두셨을까? 왜 마귀들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냥 놔두실까? 사탄의 세력이 너무 엄청나서 그냥 놔두시고,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만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나?’ 궁금할 것입니다.

주님은 선생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해 주시면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 설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셔서 아는 자들은 그 이유를 압니다. 그러나 의문을 품고,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더욱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어째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영혼보



다 더 많은지 알고, 사망으로 가는 자들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비단 그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더욱 확실히 알고 생명길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3> 예수님 출현

### <예수님 말씀>

나 예수가 대답하는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더욱 사망으로 가지 않게 되고, 전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 쪽 화면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4>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 예수와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어떤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를 위하여 총력을 다해 능력으로 역사하는데도 왜 구원받고 천국 쪽으로 가는 자들보다 마귀에게 끌려가 지옥 쪽으로 가는 자들이 훨씬 더 많냐고 물었느냐. 왜 마귀를 멸해 버리지 않고 활동하게 하여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그냥 놔두었냐고 물었느냐. 나의 말을 잘 듣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먹고 마시며, 향락과 쾌락을 즐기고, 뭐든지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대로 살면서 가는 길이다. 지옥으로 가는 과정은 천국으로 가는 과정보다 편하고 좋고 기쁘고 즐겁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의를 행해야 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탕감을 받으면서 다시 올라와야

하고, 하나님과 나 예수의 절대적인 법을 지키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 예수와 성령님이 각종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며 천군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해도 인간이 자기가 좋아하는 삶에 중독되어 마음, 정신, 생각, 행실이 불법으로 꼭 차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마귀라도 불법에 속한 그들을 끌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쉽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는 자보다 지옥으로 가는 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악하고, 환난을 받고, 억울함과 고통을 당하고, 악평도 듣고, 핍박도 받고, 매일 참고 매일 의를 행하며 가기에 그 과정이 어렵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영원한 기쁨과 평화의 이상세계다. 지옥으로 가는 과정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가기에 기쁘고 즐겁지만 끝에 가서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다. <영상4 끝>

#### <영상4>

선생님 초안 참고, 자료 원본 참고하여 실감 나게 영상 제작

평소 설교 내용 속도보다 조금 천천히 제작

설교 내용을 모두 자막 처리할 것

사탄이 능력이 있다기보다 사람의 마음, 정신, 생각, 행실이 문제다. 누구든지 절대 나 예수와 하나 되어 고생되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에 가겠다고 결심하며 매일 의롭게 살면 사탄의 영향도 받지 않고, 어떤 악한 자와 악평자의 영향도 받지 않고 구원길을 가게 된다.

세상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영혼의 운명이 결정된다. 고로 지옥은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행해서 가는 곳이다. 천국은 하나님과 나 예수가 좋아하는 대로 행해서 가는 곳이다. 인간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과 나 예수가 원하고 좋아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대로 살았기에 지옥으로 가는 자는 너무 엄청나게 많고, 천국으로 가는 자는 너무도 적다는 것이다.



(\*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5>**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전능자 하나님과 나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기 위해서다. 교회에 오면 술도 못 마시게 하고, 담배도 못 피우게 하고, 이성과 사랑에 관한 것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고,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다. 또 믿으면 좋기는 한데 세상 즐거움을 끊고 믿어야 되니 하나님께로 오지 않게 되고, 또 왔다가도 자기 방법대로 쉽게 살려고 떠나는 것이다.

똑같이 하나님과 나 예수를 믿어도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을 받으려면 더 잘 믿어야 하고, 온전히 믿어야 하고, 모든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을 끊고 하나님과 나 예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은 힘드니 나 예수를 믿어도 70%, 80%, 90%만 행하고 사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잘살고 부자가 되려면 그만큼 고통을 겪어야 되고 어려운 것을 행해야 된다. 고로 세상의 재벌가들과 잘사는 자들이 보통으로 사는 자들과 어렵게 사는 자들보다 비교가 안 되게 적다. 이는 그 길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세상을 버리고 고통을 겪으면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며 살기가 어려우니 지옥에 가는 자보다 천국에 가는 자가 아주 적은 것이다. **<영상5 끝>**

**<영상5>**

선생님 초안 참고, 자료 원본 참고하여 실감 나게 영상 제작  
설교 내용을 모두 자막 처리할 것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라고 했다. 그래야 전능자 하나님도, 나 예수도, 성령님도 능력을 가진 대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구세주라도, 아무리 천모 성령님이라도 만들지도 않은 미완성된 영혼을 무조건 천국으로 끌고 갈 수 없다. 삼위는 자기가 자기를 깨끗이 하는 만큼 역사하고,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사는 만큼 역사하고, 회개하는 만큼 역사한다.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 예수의 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대로, 너희 마음대로 살던 생각과 정신과 행위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세상의 기쁜 일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세상적으로 사랑하며 이성을 사귀는 행위를 버리고, 마치 먹고 싶은 음식을 안 먹고 참듯 참아 가며 세상의 중독된 것들을 자르며, 갇은 고통도 받고 억울함도 당하고 욕도 먹고 뼈를 깎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나 예수를 따라왔고 이 시대에 내가 보낸 자를 따라왔다. 얼마나 힘든 일이나. 이같이 하나님과 나 예수가 원하는 대로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고로 천국으로 가는 자들의 수가 수천 명 중의 한 명꼴이라는 것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고, 매일 놀고 즐기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길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수천 가지의 천국 법을 지키며 몸부림을 치면서 가야 한다. 고로 영계에서 보나, 육계에서 보나 지옥에 가는 자들은 군중을 이루면서 가고, 천국으로 가는 자는 드문드문 가끔 한 명씩 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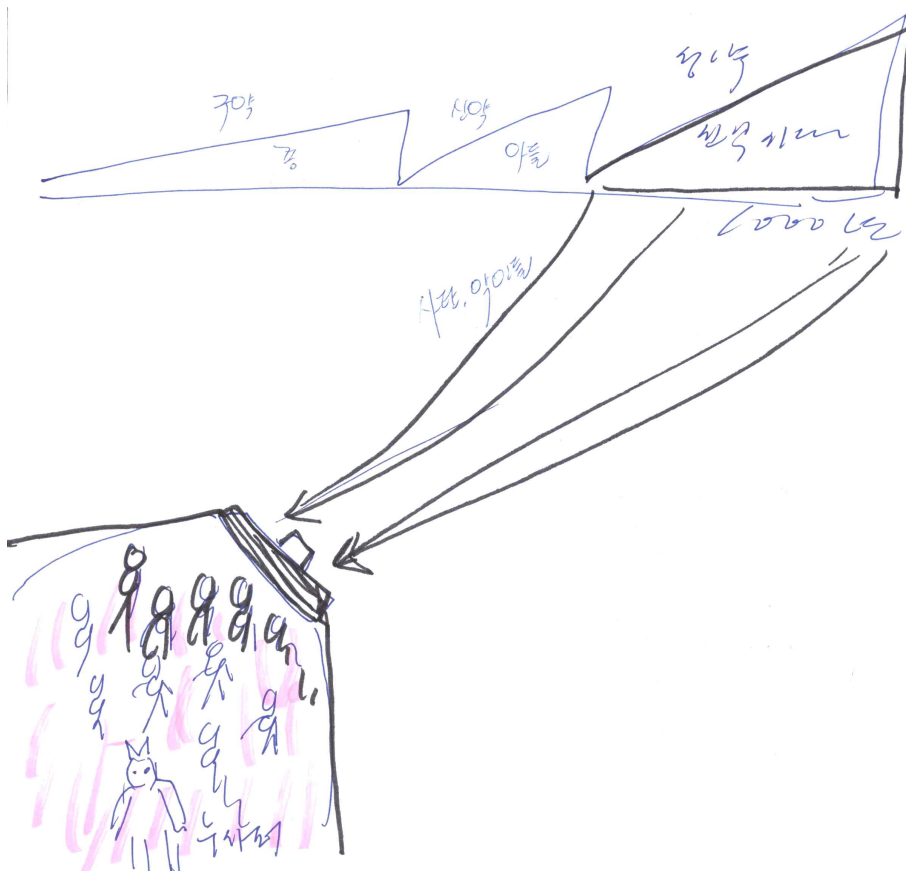
세상을 보아라. 거의 모두 자기 좋은 대로 먹고 입고, 밤낮으로 이성의 쾌락을 즐기며,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속하여 거기 빠져 살지 않느냐. 하나님과 나 예수의 법을 지키며 하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있느냐. 영계에 가서 그 실상을 안 보아도 훤히 보이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 예수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여 구원의 기간도 연장해 주고, 각종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복음도 전해 주고, 도와주고, 역사해 주었다. 그러나 자기들이 힘들고 어렵고 싫다고 안 믿고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가니, 어쩔 수 없이 사망으로 가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이다.

(\* 중요한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6> 범죄 한 사탄에게는 그 행위만큼 형벌을 준다. 또 기간이 되면 모두 사망 지옥으로 보낸다. 전능자 하나님은 사탄을 어둠에 가두셨다. 고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한 행위를 하고 불법을 행하며 살면, 어둠 속에 있는 사탄의 주관을 받게 된다. 너희가 온전히 내 안에 거하면 ‘사탄 불가침’ 이다.

성약역사 신부 시대 1000년의 기간은 사탄을 옥에 가두는 기간이다. 이는 시대 사명자가 조건을 세우고 나 예수의 육이 되어 새 역사를 시작하고 에덴동산에서 못 이룬 뜻을 이뤘기 때문이다. 너희도 온전한 신부의 조건을 세워 나의 신부가 되어 살면 사탄을 옥에 가둔 영웅이 된다. (아멘!)



너희가 절대 나 예수와 하나 되고 시대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하면 사탄 불가침이다. 그는 하나님과 나 예수와 같이 사탄을 옥에 가두는 자가 된다. 너희가 책임을 다함으로 타락한 천사, 곧 나 예수의 천적 원수

를 지옥 불못에 넣어 버리는 것이다. 힘들지만 내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 예수의 원수이며 천적인 사탄을 지옥에 가두자!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사탄과 싸워 이기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보자. 『[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3]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했다.

내가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대로 지금은 에덴동산에서 너희 신앙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루시퍼로부터 모든 사탄 마귀들을 무저갱에 가두는 시대다. 성약역사 1000년 동안 사탄을 가둔다. 루시퍼는 그동안 지은 죄의 수만 배나 그 죄값을 받게 된다. 성약 신부 역사 때에는 사탄과 함께 악한 자들의 영도 고통을 받기 시작한다. 그들에게는 영원히 복직이 없다.



혼인 잔치 때 그들을 활동하게 하겠으나. 너희는 나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라. 너희가 나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야 그로 인하여 사탄이 지옥에 갇힌다. 너희 선생같이 사탄을 이긴 자가 되어라. <영상6 끝>



### <영상6>

선생님 초안 참고, 자료 원본 참고하여 실감 나게 영상 제작  
설교 내용을 모두 자막 처리할 것

이 시대는 6000년 구원역사 중에 최고로 결실하는 시대다. 아담과 하와가 세우지 못한 사랑의 뜻을 세우고 가는 시대다. 나 예수가 너희 선생을 가르치고 내 육신이 되는 사명을 주었다. 너희 선생은 내 앞에 죽도록 충성하여 시대 나의 발판을 만들고 뜻을 이루었다.

충성이란, 사랑이다. 나를 절대 사랑하는 것이 충성이다. 나와 일체 되어야 이긴다. 내가 보낸 자와 일체 되어야 이긴다. 내가 보낸 자는 나의 육이 아니냐. 나 예수의 영과 일체 되고, 나의 육과 일체 되어 이기라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지 않아서 사탄의 몸이 된 것이다. 어린 자나 큰 자나 구세주와 일체, 하나님과 일체 되는 사랑이다. 절대 사랑하면 사탄 불가침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세상과 하나 되어 지옥으로 가는 삶을 사니, 사탄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천국으로 가는 자들보다 더 많은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올해 대역사는 나 예수와 일체 되는 것이다. 나와 온전히 일체 된 자는 내가 최고로 원하는 일을 한 자다. 깨끗이 회개하고 깨끗이 살아라.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뒷전에 있으면서 왕후가 되려고 하는 와스디같이 섭리 뒷전에 있으면서 나의 신부가 되려 하지 말아라. 그리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겠느냐. 신부로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낙원 차원의 구원을 받겠다며 그것을 소망하고 사느냐. 어리석은 생각 하지 말고 전심으로 온전히 살기 바란다.

내가 말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을 알고, 이제 더욱 자기의 차원을 높여 천국길로 향하여 살아라. 그리고 자기를 중심하여 자기 좋은 대로 세상적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망으로 가는 자들을 이끌어와라.

너희도 삶 가운데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있으면 모두 끌고 나 예수가 원하고 좋아하는 대로 온전히 살기 바란다. 그래야 온전한 천국길로



온다. 힘들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시간을 쓰면서 80%, 90% 선에서 살지 말고, 고생되어도 100% 차원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이 시대 섭리역사로 와서 나를 믿고 산 보람 있는 삶이다.

시원찮게 믿고서 그 영이 나의 재림 때 휴거되지 못한 채 1000년을 살려느냐. 너희 선생이 10대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못 한 일을 하겠다며 산에서 기도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이 시대 섭리역사를 낳았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희가 너희 선생처럼 나를 따르면 그 터전 위에 생명들이 쉽게 오게 된다.

육도 영도 온전히 시대 휴거의 길을 가야 한다. 육이 시대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휴거된 자들은 그 영이 천사장이 나팔 불고 나 예수가 재림할 때 신부로서 나를 맞고 천국으로 휴거된다.

인간은 두 길은 못 간다. 세상 것도 좋아하고 섭리사 것도 좋아하면서 두 길을 못 간다. 이런 삶은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이 섞인 것과 같은 삶이다. 이왕에 할 것인데, 영원한 천국 쪽의 삶을 살아 축복받고 영도 육도 형통하게 하여라. 영과 육이 형통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으면, 그 즐거움이 세상 즐거움과 비교가 되겠느냐.

천국으로 가는 길은 정말 힘들지... 그러나 그 과정의 기간은 자기를 온전히 만드는 기간이다. 빨리 자기를 만들어 축복을 받으면, 세상으로 가면서 즐기고 사는 자들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산다.

자기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만큼 사탄을 멸한다. 지금 이때 너희는 시대 사명을 함으로 사탄을 가두는 데 전심을 다하여라. 자기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만큼 축복이며, 형통과 이상세계다. 잠시 살다가 끝나는 물질적인 살덩어리와 마음 덩어리를 위해 살지 말고, 고생되어도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라.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 모두에게 시대의 답을 준 주 예수다. 살롬!

<광 고>

지난 주일에도 광고했지만, 12월 14일 수요말씀은 성탄에 해당되는 말씀이 나가기 전, 2011년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섭리사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들으면 기쁘고 즐겁고 반가운 말씀입니다. 12월 14일 수요말씀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미리 꼭 시간을 빼서 이 날은 꼭 참여하여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